

2017. 2. 11. 고야 선교 11차 4일차 보고

팀원 : 최준기(팀장), 김미수, 최기쁨, 김영산, 백혜경, 왕정숙, 유정란, 이지형, 이강자, 이은민, 정병욱, 박설희, 송민환, 오춘식, 이정근, 신명화, 정하나, 이은수, 이다운 이상 19명 + 유지(통역)¹⁾, 켄타(3일 동안 함께)²⁾

1. 일정

가. 새벽기도, 아침식사, 청소

나. 남성회 - 간증(아카시)

여성회 - 음식 만들기(지지미, 김치, 잡채) : 김치교실

다. 워크샵 - 1) 성막만들기

2) 종이접기

라. 청년회(삼일, 고야 청년 : 저녁식사와 레크리에이션)

마. 홈페이지트

- 시게미 상 : 김영산, 백혜경, 왕정숙, 유정란, 서운정(선교사)

- 토모키 상 부모 : 이지형, 이강자, 이은민, 박설희

2. 남성회 - 간증 보고

참석 : 목사님(히코우미), 목사님 아버지님(토마리 분쵸), 아게나 에이키 상, 죠나단, 스즈키 상, 쇼군, 켄타, 최준기(팀장), 김영산, 이지형, 정병욱, 오춘식, 송민환, 유지(통역)



가. 각자 자기소개 및 짝막한 간증(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교회에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등)과 개인 기도제목 나눔

1) 정말 봉사(무료)... 새벽까지 못 자고 통역하고 번역하고, 정말 힘든데 함께 해주어서 고마워요. 통역으로 수고해준 민환 형제, 설희 자매 고마워요.

2) 특별히 3일 동안 계속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나. 목사님 : 한 번 중고생 데리고 삼일교회 갔었다. 고야 삼일 교회 선교를 통해 질문 나눠 보고 싶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 인구 차이는 한국의 경우 25~30%인데, 일본은 1% 이하다. 선교사가 들어온 시기는 한국과 일본이 거의 비슷하나, 같은 시기 복음이 들어왔음에도 일본이 1% 이하인 것은 무엇일까?

정병욱 :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본의 신사참배 문화나 일왕? 때문이 아닐까?

아게나 에이키상 : 다른 곳에 나아가는 한국 사람들의 믿음의 강건함이 좋다. 영화 침묵에서 에도시대 이전 일본 기독교인들 130만 명이 박해받는 모습이 나온다. 오키나와 낙섬이 많은데, 예전엔 밖에 나가 전도했지만 지금은 그러기 어렵다. 남성회 여성회 비교했을 때 남성회 인원이 없다. 가족 구원에 관한 기도제목 많은데, 오키나와에서 여성이 먼저 믿고 남편이 구원 받는 경우 많다. 이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여전히 믿지 못한 남성분들 많다. 삼일교회 본받아야겠다.

토마리 분조 목사님 : 미야코지마 낙섬에서 자라고 전쟁끝나고 오키나와 들어와 40년, 한국 친구 많고 한국 장로회 다녀왔어요.

목사님 : 프로그램 중심 의견으로 삼일은 삼일 일로, 고야는 고야 일로 바꿨는데, 이번에는 교제 중심으로 선교 프로그램 짰다. 교제 나누는 중심으로 프로그램 바꾸고 싶다. 여러분들께 오키나와의 자연환경을 마음껏 보여드리면 좋겠다. 일본이 한국을 박해한 것에 관하여 사죄한다. “만약 그럴지 않을지라도”라는 책에서 일본이 한국을 박해했을 때 한국 사람들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안다. 본토에 비하면 오키나와는 본토보다 복음화가 4~5% 많다. 고야교회 선교방침은 “받는 것보다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성경 말씀에 따라 “밖에 나아가는 선교를 중요시 한다”. 그런데 그것이 “계획적, 계속적”인지는 의문이다. 삼일교회에서 배우는 점은 계속 일본 해외 선교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처럼 계속적, 계획적으로 나가는 것이 고야 교회의 과제이다. 고야교회는 중고생을 독일, 한국에 보내기도 하는데, 청년들이 계획 짜서 나아가기도 한다. “계속, 계획적 선교 과제”가 기도제목이다. 또, 삼일교회에서 배우는 점은 가족이 함께 선교에 나아가고 있다. 혼자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부모, 자녀 함께 오는데 어린 아이들이 경험을 쌓고 선교에 생각을 갖는 것 중요. 일본과 한국의 “가족 전도”는 믿음을 이어나가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중고생과 함께 갔을 때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자료관 갔을 때 선교사 들어오기 전 성경이 들어와 있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확인하는 계기였다(선교보다 성경이 먼저 번역되어 들어와 있었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

다. 팀장님 : 다윗과 아브라함은 왜 선택받았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그들이 왜 선택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관하여 한국과 일본의 크리스찬은 각 나름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단도 한국에는 많다. 한국 교회가 부흥한다지만 남과 북이 갈려 있다. 신학교가 평양에 생겼지만 없어지고 북한은 삼대가 세습이다. 하지만 북한에도 지하에 교회가 있다. 그리고 정말 순수한 성도들이 북한에 있을 것이다. “누가 나를 순수하게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더 보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족이 믿지 않는 것은 고야 교회 상황도 비슷하다. 각 교회가 감당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라. 이지형 : 한국도 전통적으로 샤머니즘이 있고 불교도 있고, 전통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나 일본은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무엇 때문에 복음화율이 높은지 차이를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한국 이전의 조선은 나라가 망했고 기존 이데올로기인 유교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고 사람들이 나아가는 방향을 찾을 때 기독교가 역할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대한민국 위인들 중

에 기독교 인들이 많은데 그러한 영향으로 기독교가 퍼진게 아닌가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계획을 가지고 각기 다른 일을 맡기시고자 다르게 하신 거 아닐까 생각한다.

마. 목사님 : 짧은 시간 나눔 통해 한국, 일본, 삼일, 고야 교회,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뜻을 찾고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 히라조 쇼부이 상 : 같이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다.

3. 여성회 - 김치 교실

참석 : 왕정숙, 백혜경, 유정란, 이강자, 신명화, 박설희, 서윤정 선교사, 고야 성도(스즈키 상사모님 시즈코 상, 히사시 상 등)

김치교실에는 어제 온천 전교했던 온천 아주머니(야기 상)도 오셨고, 믿지 않는 유치원생 어머니도 오셨습니다. 온천 아주머니(야기 상, 아래 사진 앞자리 가운데)는 일요일에 친구도 데리고 온다고 하십니다.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은혜와 축복 받으실 거예요.







4. 워크샵

가. 성막만들기 (팀장님, 목사님, 유지 상 등)



나. 종이접기





5. 홈비지트





6. 청년회(저녁 식사와 레크리에이션)

주방팀에서 준비해주신 맛있는 저녁식사(파전, 김치전, 라면)와 ‘몸으로 말해요’ 게임, 그리고 ‘찬양’과 ‘기도’를 했습니다. 쇼군이 함께 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다음부턴 조금 더 소통해서 모두가 참여하는 교제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7. 나눔

가. 박설희 - 스시 먹고 홈스테이 좋았어요

나. 유정란 - 아직 세발의 피. 전도 많이 했지만, 여전히 세발의 피. 아직 구원하지 못한 사람 위해 내가 열심히 기도. 선교 우연히 가게 되었음. 우리 거 전도지 보고, 예수님 사랑을 받은 자 표정을 봤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는 얼굴 속에 있고, 우리를 대접해주는 손길이 가슴속에서 나와서 해주는 게 있다. 우리가 힘들어서 형식처럼 하는게 있지만 즐거워서 하면 힘이 안 든다. 그 분들에게 그런 모습 보고 느꼈다. 나를 많이 생각하게 됨. 누군가가 나를 평가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 나의 모습보고 그런 향기 나오면 좋겠다는 기도. 좋은 가정 봐서 행복했습니다.

다. 왕정숙 - 여러 가지 행사들 하고, 죽 지나오면서 보니까 여러 곳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예비하고 움직이고 이곳까지 오게해준 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느끼지 못한 것이 미소속에 베어 있는 것 감동.

라. 정병옥 -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 좋았습니다.

마. 이은수 - 오늘 여러분 간증 나눴음. 성막 가운데 두고 간증 나누게 좋았음. 특송 연습.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가사. 기억이 잘 안나지만, 선교라는거 지금까지 선교 온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생각을 바꾸는 계기. 다운이보다 먼저 말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요.

바. 이다운(눈물) - 그냥 오늘 먼저 말씀드릴 게 있다면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선교 와서 폐만 끼치고 가는 게 아닌가 죄송합니다. 혼자 방에 있으면서 밖에서 웃음소리 들리는데 울컥. 하나님 원망스럽고, 나 왜 아파요. 하나님 원망하고 했는데, 하츠미 센세(야케나 교회)가 봐줬음. 과일, 약도 주시고, 열도 재주시고, 진찰. 또 친절히 기도. "이렇게 하면 나을 거다."면서. 하츠미 센세에게 고마웠어요. 오늘 사역 통해서 온천 아주머니(야기 상)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많은 결실(한명의 결실) 바꿔 놓는구나. 계속 꾸준히 간다면 언젠가는 일본 땅을 하나님을 많이 믿는 나라로 바꿔 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사. 신명화 - 다운이 다음이라 부담. 오전부터 죽 즐거웠고 행복했고, 교제 시간 즐거웠음. 두번째 교회 갔다오면서 내가 미지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뜨겁거나 차갑거나 하라는 말씀 떠올림). 오늘 이 어린 두 친구(다운, 은수)와 이야기 나누는데 뜨거웠다. 여러모로 생각 많았고, 감사한 하루.

아. 유지 - 많이 피곤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감사한 점도 있으나, 안타까운 점도 있었음. 감사한 것은 오늘 점심 간증회 때 이야기 하는데, 뭐랄까 한국과 일본 역사상 기독교 들어온 시

기 똑같은데 크리스찬 인구 차이 나는 것(한국 20~30%, 일본 1% 이하). 이 차이 무엇이나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도 좋으니까 의견 나눠보자는 시간에 여러 이야기 나왔었음. 그 과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제가 앞으로 여러 선교팀과 함께 일본 선교를 섬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국민성 생각 한다든지, 국민성 특징을 어떻게 사용해야 복음이 전달하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간, 참 좋았음. 어떻게 해야 일본선교 해야 복음이 잘 전달될지, 물론 그것을 바꾸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좋았음.

아쉬웠던 점 첫번째, 성막 만들기 때 첨부터 끝까지 다했는데, 그것도 시간상 그렇고 너무 어려워서 어른들이 하는데도 어려운데 아이들도 같이 하다보니 너무 어려워서 심심했다.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하거나 어느 정도 중간까지 하고 완성하거나 이 정도로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자리 앉은 대로 진행하는게 아니라, 나이나 능력들을 맞출 수 있게끔. 어른들은 어른들만이 아니라 한번 설명하고 다같이 같은 속도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게 집중될 수 있다. 정말 열심히 설명하는데 도대체 듣고 있는지 아닌지 힘들었다. 이걸 정말 아닌 거 같다고 생각. 그게 아쉬웠다.

마지막 어쩔 수 없는 점. 중고생 아이들이랑 몸으로 말하는 게임 했었을 때. 내용이 어려웠는지 나나상이 쇼군에게 물어보는 거(결국엔 안 하기로 했다)하고 마지막으로 찬양 기도. 쇼군이 그냥 있으며 쳐다보았는데 슬퍼보였음. 쇼군이 소외 당한 느낌. 뭔가 좀 더 쇼군도 참여할 수 있게끔 배려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웠음. 제안을 해주면 좋았을 거 같은데. (유정란 : 느낀 사람이 합류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같이 있을 때 얘기할 수 있는데, 아예 떨어져 있었음. 쇼군이 없는 상황이라 안타까웠음. 알고 그런게 아니라 발견하지 못한것. 내일 교회 오면 정중하게 사과하고 마음의 벽 무너뜨려야 함.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다시 어떻게 해서든 꼭 메시지를 전해야 함.

(팀원들) 팀장님이 직접 전하는게 좋지 않을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감사.

자. 백혜경 - 하나님 일본 사랑에 희망있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부끄럽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를 정도로 믿음이 연약하고 작아서 아이들한테 부끄럽고, "쓴 뿌리"가 나와서 어려웠다. 성숙될까. 저야말로 매일매일 무릎꿇고 기도해야 하는데, 매일 미팅할 때마다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언제 철이 들까 생각하게 됨.

차. 김영산 - 인상깊었음, 홈페이지 너무 격하게 환영받음. 정성이 장난이 아님. 간증 시간 침례교라 그런지 자기가 세례받은 날 기억. 그 때가 예수님 영접한 날 인식. 저희도 여기 오키나와 오게 된 거 간증. 유정란 집사님 그런 일 하시는지 존경스럽고, 홈페이지 가정 하시는 일이라 공감대가 많음. 거기 오시는 손님들이랑. 굉장히 인상깊었고, 오면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즉, 오키나와에 가장 많은 교회(일본 내) 있는데, 큰 교회는 오픈 안 한다. 겸손하지 않고, 오픈 오픈하지 않음. 유일하게 교야교회 개방적이고 앞서간다. 어떻게 보면 오키나와 교회의 희망 아닌가. 그래서 이런 얘기 하나보다. 인상깊었고 감사.

카. 이지형 - 내일 선교보고, 네이버 번역기 돌렸는데, 유지가 시간 많이 들여서 시간날 때마다 고쳐줘서 너무 감사. 선교보고 잘 고쳐줘서 고마움. 오전 간증회 때 한국과 일본이 왜 차이가 있나, 궁금하신가 보다, 생각했는데, 똑같은 질문. 순간적으로 굉장한 책임감이 밀려옴. 궁금한 정도 아니라 정말로 뭔가 있다는 생각. 우리가 선교 놀러 오는 건 분명 아니지만, 일본보다 믿음의 환경 좋긴 하지만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책임감이 상당히 막중함. 거기서 그냥 생활하는게 아니라 막중한 책임감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

타. 이정근 - 전체적으로 재밌었고, 다 재밌었고. 손재주 종이접기 좋았었다. 제일 좋았던 장면은 청년교류회 때 다과 나눌 때 다운이가 피아노, 은수 찬양. 하나 율동, 켄타가 춤. 저 모

습이 은혜스럽고 천국같음. 찬양이 '천국의 마치'였음. 춤추는 게 정말 은혜스러웠고 우리가 천국가면 아무 걱정 없이 찬양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 은혜스러웠고 교제다운 교제.

파. 오춘식 - 여러가지 다 좋았지만, 기억에 남는 건 온천에 갔다 전도하신 분 오신 게 너무 은혜스러웠다. 사람 모일 수 있는 확률 참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와서 사람이 온 거에 너무 놀랐다. 청년교류회 때 일본어 잘 하는 사람이 통역해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데 말이 안 통하는데도 서로 열광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게 좋았다. 계속 만들어서 발전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하. 송민환 - 오늘 교제가 많았는데, 쇼군에 대해 말씀해 주셨지만, 쇼를 만났었는데, 이번에는 짐을 나누는 건 못했다. 정말 처음에는 열심히 활동하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쇼가 지적 장애가 있다고 들었다. 그걸 미리 알았으면 이상한 행동을 해도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짐을 나누거나 하진 않았는데, 오늘 왔었다. 굉장히 얼굴이 밝지 않았다. 찡그리고 화난 표정으로 인사하러 왔다. **첨엔 맘을 안 열었지만 장난치니 이야기 나왔다. 그런 정보가 공유되면 좋겠다. 이 교회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잘 안된다는 걸 느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선교하는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교류회 하면서 이 때까지 장난치고 했는데, 아이들 마음 태도 신앙에 대한 태도 알 수 있게 되었음. 교류회가 참으로 감사한 시간. 레크리에이션 통해 언어 장벽 넘을 수 있으면, 여러분 일본어 공부 하면 좋겠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일본어 공부 했으면 좋겠다. 조금씩 하면서 일본어 하면 애들이 마음을 연다. 장난도 치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가정사 이야기 자기 아픈 얘기 하면서 기도 할 수 있겠다. 그런 교류회 시간 되었고 일본 선교 하나님께 감사. **켄타 생각한다. 하나님께 우리한테 보낸 게 아닌가. 삼일간 서포터. 매우 힘들었을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안다. 웃으면서 받아들이는 모습. 하나님 보내신거 아닌가. 교류회 시간 활발해지고 깨닫는 시간 되어 좋다.** 야케나 교회 목사 만났는데, 요리 만든거 들고 주차장 갔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 뜨거운 마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11년 전 오사카 선교 갔을 때 뜨거웠던 열정. 모두 하나님 예비하신게 아닌가 생각.

유정란(추가) - 어제 대접받아 야케나 교회 목사님께 부침개, 잡채, 김치 드렸고 전달했는데, 똑같은 마음 느꼈다. 데워드시라고 했는데, 눈에서 사랑이 느껴지면서 가슴으로 울었다. 어저께 준비해주신 마음도 크게 받았는데, 하늘만큼 그 사랑을 받더라. 일손 딸리고 바빴는데, 팀장님 얘기하고, 다시 준비해서 해주셨는데, 그 눈빛 죽는날까지 기억할만큼 사랑이 넘치고 예수님 웃으면서 그런 눈빛으로 감사했을 것. 그분 손길 몸짓 마음으로 그 분 옆 악령들 물리치지 않나 감사. 팀장님 음식 준비 오더에 감사했다.

거. 켄타 - 3일간 감사했습니다. 즐리신 분 얘기가 길어질 거 같다. 주무셔도 된다. 정말 3일간 삼일멤버와 함께 함께 하나님, 정말 고야 교회, 오키나와 교회 나의 신앙임. 같이 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 일본, 오키나와, 일본 땅 위해서 오신 것 감사. 나를 위해서 여러분 보내주신게 아닌가 감사. 오늘 마지막 게임에 쇼군 참여 못함. 유지상 말했는데, 쇼군 자신은 정말 나는 쇼군이 많이 나아졌다 생각. 폭언하는 것도 봤었다. 쇼군은 상담 받는 걸로 알고 있다. 날마다 기분이나 감정기복이 심함. 결국 악령에 뒤집어 씌어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면 좋겠다. 고야교회 사람들 육체노동 뿐 아니라 영적으로 힘든 분들 많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할 거라 믿는다. 삼일교회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오후 남성 간증회 시간. 일본과 한국의 퍼센트 차이. 주기 리더가 얘기했는데, **퍼센트나 숫자에 신경쓰지말고 순수하게 신앙생활 중요. 신앙생활 중요한 건 나는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의 신앙생활 이어나갈 계획. 한일관**

계도 안 좋은 상황. 그렇지만 그런 것에 관계 없이 하나님 한 가족 안에서 찬양, 기도 통해서 세상에서 보여주는 뉴스들이 한일관계 안 좋다 보여주면 가슴이 울컥. 한국과 일본의 평화와 다른 모든 것 위해 기도하겠다. 개인적인 기도제목이지만 그것은 역시 아까 우선 쇼군에 대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자기 엄마를 구원을 위해서도 여러분들도 쇼군 어머니 위해 기도했으면.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분 그분들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다. 삼일교회 고야 교회 관계가 교제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 했으면 좋겠다.

너. 정하나 - 이 느낌. 부담. 땀흘리시면서 유정란 집사가 웃는데 감동. 유정란 집사 땀방울에 정말 감동. 한번도 힘들다고 내색 한 적 없고 그 자리에서 맡은 거 그 자리에서 은혜. 나 못해 하는 사람 없이 묵묵히 하는 거 보면서 은혜받았다. 부끄러워졌음. 오늘 같이 찬양, 은수 앞서 말처럼 같이 찬양했을 때 너무 감동. 일하시고 참여하셨을 때 뭐라도 해야겠다. 이 시간 소비하면 안 되겠다. 찬양하는 연습하는데 한명한명 오더라. 그시간 특별하게 느껴지는것. 하모니가 느껴져 좋았음. 제가 항상 특송 고를 때마다 어느 날 흥얼 거려지는 찬양 있는데 그걸 특송함. 이번에도 그게 좋겠다고 했음. 했는데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곡 주셔서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더. 최준기 - 제일 바쁜 일정 날이었는데, 준비도 잘 안 된거 같고 어떻게 해야될까 했는데 부담감 가지고 있었는데 풀어지는 거 봤음. 간증회, 성막만들기. 좋았음. 자리를 못 떠났음. 성막 만들기 와주셨다는데 감사. 목사님 성경공부 시간에 하시겠구나 했음. 유치원 어머니 교회분 아니라고 얘기 만드는데 어머니 끝까지 만들더라. 유지가 교회 안 다닌다고 했을 때 복음 증거해야겠다고 해서 예수님 통해 하나님 나아갈 수 있다고 짧은 복음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 ("유치원 김치회(유정란) - 너무너무 맛있다고 스무봉지, 사람들 막 와서 가져가라고 봉지에 담아났는데 왔음. 언제 또 만드냐고 이름표 적어갔음. 이 교회 다니면 언제 올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교회 계속 오면 올 거다. 다닌다고 오겠다고 재밌다고. 보이지 않는 멘트. 올 때 여러분 거 다 사가지고 제공해주겠다. 정말 고맙다. 어떻게 선교할까 고민했는데, 전혀 믿지 않는데 김치 통해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진짜 즐거냐고 해서 뿌듯함. 그 분들이 다녔으면 좋겠다. 적당하게 챙겨가서 좋았음.")

최준기 - 고야교회 초기부터 섬겼는데, 항상 나온 얘기가 코리안 파티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될까. 그런 생각. 차수 진행될 수도록 성도분들이 잘 안 오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선교팀 멤버 바뀌고 할 수 있는 공연도 제한되고 많이 지쳐있어서 과도기 온 거 같고, 고야교회 성도분과 깊은 얘기 나누면 좋았을텐데. 이번 차수가 고야 교회 상황 알고 마음도 알 수 있었던 상황. 깊은 얘기 못 나눴지만 남성 간증회 때 선교 나가고 싶어하는 상황. 요카츠, 야케나 교회 방문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 히사시상 얼마 전 정체성 생겼다. 최근 고백. 여성 옷 입고. 아픔이 있었구나. 고야 교회 혼자 와서 찬양. 다가가기 힘들었음. 혼자 찬양. 혼자 싸움. 고백하고. 슬펐음(눈물). 고야 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음.

유지 - 기도제목 한가지 더 : 카츠에상 - 얼마 전 위쪽에 수술. 어떻게 아픈지 얘기 안 해 줌. 걱정시키기 싫다고. 그런 표정 보이기 싫다. 아직 상태가 안 좋은 듯. 침례도 안 받은 거 같음. (최준기) 한국어 교실.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고 고야교회 할 때부터 코리안 파티. 맘이 열리고 표정 밝아짐. 일본 분들이 성경 교실 통해 믿음의 단계 나가는. 많이 말랐음. 회복 위해 기도.

8. 기도제목

가. 카츠에, 쇼군, 어머니 구원, 히사시상 회복 위해.

목사님 건강(감기) 회복 위해.

미치상 회복 위해.

고야 교회 아픈 성도분 건강 붙들어 주시길.

나. 내일 주일.

하나님 영광받는 예배 되게, 주일 되게,

내일 오시는 온천전도 분, 카츠에 등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목사님 진리 회복 말씀 위하여.

고야 성도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길.

선교 보고하는데 목사님도 선교 나가고 싶어 하시는데 고야 교회 선교 비전을 위해. 하나님께서 고야 교회 통해 하시고 싶은 생각 하실 수 있게.

그런 선교 시간되도록.

삼일 고야 믿음의 공동체 확인되는 시간 되도록.

더욱더 교제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제의 시간 되도록.

알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성도분. 그 분들과 좀 더 친밀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 교제, 선교회, 인사, 특송 위해 기도.

다. 한국과 일본, 역사 상처, 예수그리스도 통해 하나되고 회복되기를.

일본 부흥 허락해 주시길.

일본 미래, 나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분 있는데.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문제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일본 땅 부흥 있도록 많은 영혼 돌아오도록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본 되도록.

고야교회 일본 교회 부흥하도록 기도. .

라. 켄타 위해서 - 3일 휴가, 내일부터 근무

켄타 축복하고, 고야 교회 몇 분의 청년 있지만 켄타 사용해서 힘들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 일어날 수 있도록. 켄타군 일 힘들지 않도록. 힘들 때마다 지혜와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시길. 켄타 통해 함께 일하는 지체들 예수님 알고 회복되길.

9. 내일 일정

새벽 예배 없음.

식사 후 방청소, 가나홀 특별히 깨끗이 되어 있어야 함.

07:00까지 일어날것

식사 07:30

08:30 모임

09:00 어린이 예배, 모에 + 한국어 찬양, 의미 설명. 천국의 마치.

11:00 대예배 앞에 나가 찬양 특송 : 연습. 하나님

간증 대표 유정란 - 한국어 하면서 통역

부채춤만

가나홀 간단한 커피

피피티 중요. - 어린이 찬양, 한국어 찬양

13:00 예배 끝.

점심 식사 : 피자

저녁 예배

10. 혹시 질문사항, 건의사항.

내일 어린이 예배 갖는 동안 간증 : 없음.

월요일 감사기도 : 감사기도 때 간증 - 이다운, 한분 추천 부탁

끝.